

1 “물가 상승률 둔화… 불확실성 곳곳 산재, 내년 반등”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 기인
“내년 경기개선 등에 상승 전망”

코로나19 봉쇄조치 강도 따라
국가별 물가상승률 흐름 상이
봉쇄조치 시행국가 물가 올라



이상형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국제유가 추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0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접촉 기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도 물가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가별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

와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정부정책 등의 차이로 물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면 봉쇄조치가 시행된 선진국의 경우 식료품 등 생필품가격이 생산 차질, 비축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

면서 물가상승률 둔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봉쇄조치로 인한 사업체의 영업중단 등으로 가격조사가 어려워진 점도 서비스물가의 하방압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필품가격 상승이 미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부정책이 물가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봉쇄조치가 강한 국가일수록 식료품 가격 상승폭은 컸다. 우리나라에 비해 봉쇄조치가 강했던 미국의 4월 식료품 물가는 1월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독일(2.1%포인트), 스페인(1.9%포인트), 프랑스(2.2%포인트), 이탈리아(2.2%포인트) 등 유럽 지역의 물가 상승폭도 컸다. 반면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는 3월 0.7%포인트 올랐다가 4월 0.1%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락, 경기

둔화와 함께 무상교육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봉쇄조치 강도 등에 따른 부문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기 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전개 양상, 국제유가 추이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흐름을 보면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 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2 “글로벌교역 금융위기보다 위축… 반도체 회복 등 관전”

하반기 반도체 수출 회복 전망
美·중 무역 갈등도 변수로

반도체 수출 회복 여부, 미·중 무역 갈등 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이 올해 수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0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3월까지의 제한적이었으나 4월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글로벌 수입수요는 예상보다 강력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전례 없는 봉쇄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 구매활동 제한, 통관·물류 지연 등으로 자국내 경제활동

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글로벌 생산, 교역 위축 정도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때보다 교역이 확대된 중국과 아세안 5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가 흐름으로 돌아서는 회복 시기도 올해 중반에서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봤다.

박종성 한은 부총재보는 “하반기 이후에는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그간 지연된 휴대폰·가전제품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반도체 경기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은 긍정적 영향보다 클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버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조치로 반도체 수요 비중이 더 큰 휴대폰·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수요가 줄어든 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그간 지연된 휴대폰·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러한 전망도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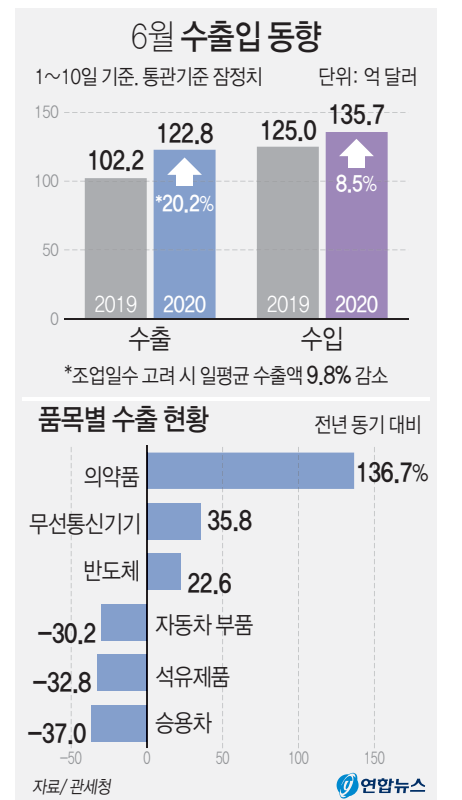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고정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업들이 구입시기를 늦추면서 반도체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갈등도 걸림돌이다. 올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완화 흐름을 보이던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는 지난해와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수입유발효과가 큰 글로벌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올해 상품수출(GDP 기준)은 지난 2월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다시 타격



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3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3~4월 기업 대출 증가폭 커
직접금융시장 중심으로 악화
완화기조 대출태도 보완 작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기업의 현금 흐름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는 확대됐고,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도 강화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0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압박부진으로 한국,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기업들의 회사채 신

용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다.

국내 기업 회사채 스프레드는 AA등급 기준으로 올해 2월 말 39bp(1bp=0.01%포인트)에서 4월에는 70bp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73bp에서 3월 중 최대 250bp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유로지역은 72bp에서 최대 179bp까지 커졌다.

회사채 발행 규모의 경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주요국과 우리나라 모두 우량물(AA등급 이상) 발행이 늘어나면서 비우량물(A등급 이하)의 발행비중은 축소됐다.

기업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4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규모

를 보면 미국과 유로지역은 전년 동월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미국,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락한 반면 유로지역은 코로나 이전부터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운용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됐다.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미국, 유로지역은 강화됐으나 우리나라는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미국의 대출태도는 강화기조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비율이 지난해 4분기 0%에서 1분기에는 41.5%로 강화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분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전분기(23)와 비슷한 20으로 전망됐다. 다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앞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직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악화됐다”며 “이를 간접금융시장이 일부 보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됐으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움직임 등에 비추어 주요국에 비해서는 악화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고채, CP·단기사채, 회사채 등 금융시장은 코로나 이후 시행된 시장안정화 조치로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국고채 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채권 단순매입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금리 변동성을 비롯해 국고채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고채 시장에서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 금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채권공급 확대 우려 등으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증권시장에서도 실물 충격 우려로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시장의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3월 중순 이후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고채시장, 신용증권시장 내 불안감이 여전히 높고 향후 코로나·과금영향,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